

3자연합 '반쪽 승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5대5로 재편

임시 주총 개최... 경영권 분쟁 지속
의결권 주식 6771만3706주 집계
'이사회 정원 확대' 정관변경 부결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를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중윤·종훈 '형제' 측이 각각 5대5 동수로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갈등의 핵심 주축인 양측이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제약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장 위임장 집계를 이유로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에서 4시간 넘게 지연된 일정 끝에,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이 시작됐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날 출석률은 84.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석한 주주의 전체 주식 수는 5734만864주,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자리에서 임중윤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6771만3706주 등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는 3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우선 첫 번째 안건인 3자 연합이 제안한 '정관변경'의 건은 부결되면서, 3자 연합이 계획했던 6대 5 구성을 갖춘 이사회 재편성은 무산됐다.

3자 연합은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려

서,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1인과 추 가될 1인 자리에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을 올린다는 전략을 지속 밝혀 왔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수는 종전 대로 10명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 가운데, 이사회 구성은 5대 5로 변화를 맞게 됐다.

두 번째 안건인 기타비상무이사 신 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

의 건 등 '이사 2인 선임'의 건을 통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결과다.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선임의 건은 자동 폐 기됐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금까지 정원 10명 중 9명이 5대 4 구성을 이뤄 왔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중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후보 권규찬(기타비상무이사), 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 등 3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해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임시 형제 측 승리를 이끈 바 있다. 임중윤·종훈 형제를 비롯해 해당 이사진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28일까지다.

이와 함께 세 번째로 상정된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은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것으로,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임시 주총이 마무리된 자리에서 임중윤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오늘

임시 주총을 계기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결과는 '한미약품그룹을 위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경영 체제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이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약품그룹의 오랜 최대 개인주주로서, 치열한 분쟁 상황이 지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히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은 오는 12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해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제4인뱅, '혁신 서비스' 미이행 시 인가 후 업무제한

금융위, 제4인뱅 인가기준 발표
안정성·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강조
신용평가모형 혁신·포용금융 강화

금융당국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을 내걸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계획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

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이 평가의 중점사항이다.

우선 자본조달의 안정성은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현재 법령상 인터넷은행 설립시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다만 지금 운영중인 3개 인터넷은행을 보면 초기 취급대출 부실위험 대응과 경영지도 비율 등 인가신청을 위해 빠른 증거가 필요했다.

이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대주주 제재 이슈가 발생했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비금융주력자인지 불분명해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한다.

인가 이후 자본확충 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의 출자확약서 등)도 확인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집중 평가한다.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금융권 중 상품·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비

자 이익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평가해온 포용성 항목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번째 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으로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경쟁도 평가를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경쟁압력도 하락하고 있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몰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투입돼야 경쟁 압력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대출 수요는 증가(집중도 ↑)하고 있지만 금융공급이 부족(경쟁압력 ↓)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 평가를 강화한다.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인가시 자금조달계획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구축 여부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LGU+, AI·디지털 혁신 통해 성장 기반 마련

홍범식 체제 첫 조직개편 단행

LG유플러스가 홍범식 신임 대표를 맡은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담그룹을 신설하며 AI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 AX(AI 전환) 사업화 조직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홍범식 CEO(최고경영자) 체제를 맞아 시행하는 첫 번째 조직개편이기도 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AI 전환으로 고객의 성장을 이끄는 회사)



로 빠르게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AI 기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주도하는 'AI 에이전트 추진그룹'을 신설한다. AI 에이전트 추진그룹은 B2C(기업-소비자 거래) 사업을 담당하는 컨슈머 부문에 배치된다. 그룹 산하에는 '모바일에이전트 트라이브'와 '홈에이전트 트라이브'를 각각 신설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각 조직을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을 차용한 애자일(Agile) 형태의

팀이 모인 '트라이브(Tribe)'로 구성해 AI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AICC(AI컨택센터)·AIDC(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B2B(기업간거래) 사업에서도 AX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적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CTO 직속으로 '에이전트/플랫폼 개발랩'을 배치해 AI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더한다. CHO 산하에는 'AX/인재개발 담당'을 배치함으로써 전자 구성원의 AX 역량 확보 및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효성, 김태형 부사장 등 31명 임원 승진

실무급 임원 전진 배치

효성그룹이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효성은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사진)이사의 부사장 승진과 8명의 신규 임원 선임 등 총 31명 규모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극대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실무급 임원을 전진 배치하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 극복을 견인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이사는 1964년생으로 지난 1989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전통 무역맨이다. 2012년 전략본부 LED 사업단 및 사업개발 담당 임원을 거쳐, 2017년 두바이지사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대표 펄프 전문 기업인 효성굿스프링스(주)의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차현정 기자 hyeon@